

의식, 상상가능성, 좀비*

Consciousness, Conceivability and Zombie

최 훈**

(Choi Hoon)

요약 의식 이원론자들은 의식이 전혀 없는 좀비가 상상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유물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의식에 대한 상상가능성 논증은 그 동일성이 이미 확립된 물=H₂O의 경우와 비대칭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나는 두 경우에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상가능성 논증은 그럴듯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첫째, 물과 H₂O 사이의 형이상학적 간극은 개념적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 메워진다. 그러면 신경과학의 발달은 통증을 비롯한 의식의 형이상학적 간극을 메울 것이다. 둘째, 의식 이원론자들은 물이 아닌 H₂O를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고, 의식이 없는 좀비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착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착각이 가능하므로 두 경우가 다르게 취급되면 안 된다.

주제어 의식, 상상가능성, 좀비, 신경과학, 의식 이원론

Abstract Consciousness dualists argue that materialism is false because of the conceivability of zombie which has no consciousness. The argument from conceivability applies to consciousness asymmetrically with Water=H₂O whose identity was already established. However I think that argument is unsound because asymmetric application is implausible. First, the metaphysical gap between water and H₂O must be filled not by conceptual analysis, but by empirical methods: the neuroscientific developments will fill the metaphysical gap of consciousness. Second, consciousness dualists said it is illusion when we seem to conceive of H₂O without water, but it is not illusion when we conceive the zombie with no consciousness. I argue it is also illusion in the case of latter. So two cases must be concerned equally.

Keywords consciousness, conceivability, zombie, neuroscience, dualism

* 이 논문은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05-2004-000-10050-0)

** 삼척대학교, 연구 세부분야: 심리철학, 인지과학의 철학, 비판적 사고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삼척대학교 유아교육과, 전화: 033-570-6676, E-mail: choih@samcheok.ac.kr

대부분의 철학적 문제가 그렇듯이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플라톤 등 옛 그리스에서 연원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시작은 데카르트에게 돌려야 한다. 그는 마음은 비물리적인 어떤 것, 다시 말해서 뇌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다. 이를 이원론이라 한다면 그 반대쪽에는 정신적인 상태는 어떤 형태로든 일종의 뇌의 상태라고 주장하는 일원론 또는 유물론이 있다. 그 사이, 그리고 양 끝에 많은 이론들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신경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유물론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에클스 경(Sir J. Eccles)과 같은 몇몇 신경과학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뇌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이제 마음의 모든 현상들은 유물론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뉴런들의 행동이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마음의 여러 현상 중 의식만은 유물론적인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의식이 갖는 특이한 성격 때문이다. 의식은 주관성과 초월성을 갖는다고 생각되어 왔다. 30여 년 전쯤에 토마스 네이글은 박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박취가 아닌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의식은 (신경과학도 포함하여)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Nagel 1974). 아무리 많은 물리적 지식도 ‘박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완벽한 대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네이글의 논변은 당시에 그 값어치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형태의 유물론인 환원주의 또는 유형 동일론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환원주의

또는 유형 동일론은 정신 현상이 신경과학의 어떤 유형 또는 물리 속성으로 환원되거나 그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능주의자들은 단일한 정신 상태는 아주 많은, 심지어는 무한하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이질적이기까지 한 물리 속성들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정신 상태와 특정 뇌의 상태 사이에는 일 대 일이 아닌 일 대 다의 짹짓기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복수 실현 가능성 논변(Putnam 1967; Fodor 1981)은 일 대 일의 짹짓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유물론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되어, 굳이 네이글의 논변에 기대지 않고서도 유물론을 공격할 수 있었다.¹⁾

복수 실현 가능성 논변이 새로운 형태의 발전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에, 네이글의 직관 펌프는 최근에 철학자 잭슨과 차머스의 논변으로 다시 살아나 유물론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잭슨과 차머스는 의식에 대한 어떤 가능한 신경과학적 설명도 뇌 과정과 의식 경험의 속성을 사이의 ‘설명 간극’(explanatory gap)을 넘겨둘 것이라고 주장했다(Jackson 1986, 1993, 1997; Chalmers 1996). 의식 이원론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의 주장은 유물론에 대한 강력한 반론일 뿐만 아니라, 정신 현상에 대한 어떠한 기능적 서술이 주어지든 그러한 기술을 만족하면서도 정신 현상과 연관된 감각질(qualia)이 결여될 수 있다든가, 또는 연관된 감각질이 전도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능주의에 대한 반론으로도 작용한다.²⁾

1) 최훈(2004)는 복수 실현 가능성 논변이 생각보다 약한 토대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유물론의 주장이 그리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물론 Jackson과 Chalmers는 Descartes와 같은 실체

국어사전에서는 의식(意識)의 첫 번째 뜻으로 ‘깨어있을 때의 마음의 작용이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³⁾ 의식 이원론자들이 말하는 의식은 감각적이거나 현상적인 성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통증을 느끼거나 색깔을 지각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각적 성질을 갖는데, 이것을 감각질이라고 부른다. 이 의식은 일상 언어의 의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어떤 것인 것 같지는 않다.

의식에 관한 철학자들의 관련 문헌에는 의식의 사례로 통증이 자주 등장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통증보다는 시각적 의식에 더 관심을 보인다. 신경과학자 크릭과 코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식 중에서 시각적 의식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 인간은 매우 시각적인 동물이며 우리의 시각적 감지가 정보의 측면에서 특히 생생하고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각적 입력은 대개 제어하기 쉽도록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을 대상으로 이미 많은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등 영장류를 대상으로 실험이 가능하다는 실험 편의상의 이유도 덧붙인다(Crick 1994: 38쪽; Crick & Koch 2001: 256쪽; 최훈 1994도 참조). 그러나 크릭은 동시에 통증이나 시각적 지각과 같은 의식의 서로 다른 측면들은 공통된 기본적인 메커니즘(아마도 몇 가지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Crick 1994, 36쪽) 의식의 어떤 측면을 사례로 드느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의식 이원론자들은 통증이 됐든 시각적 의

이원론자들은 아니다. ‘의식 이원론자’라는 이름은 김기현(2001)에서 따왔다.

3) 『동아새국어사전』

식이 됐든 의식은 어떤 신경과학 이론에 의해 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와 물리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우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의식에 관한 긍정적 사실들이 성립하지 않는 세계가 논리적으로 가능함을 주장한다. 차머스는 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와 물리적으로 동일하면서 의식이 전혀 없는 좀비(zombie)의 상상가능성(conceivability)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의식과 물질에 관한 우리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물질적으로 우리 세계와 동일하면서 의식이 없는 세계를 개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물리적 속성들이 똑 같은 두 대상들이 정신 속성에서도 다를 수 없다면 정신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에 수반한다고 말하고, 이런 심신 수반은 유물론의 최소 요건이라는 데 철학자들은 보통 동의한다(Kim 1996: 12쪽). 그런데 좀비와 같은 사례는 우리와 물리적 성질이 똑같으면서 의식이 없는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에 논리적으로 수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식 이원론자들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좀비는 상상가능하다.
- (2) 상상가능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 (3) 따라서 좀비는 가능하다.

이 논증을 상상가능성 논증이라고 불러보자. 좀비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정신 속성이 물리 속성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신 수반은 유물론의 최소 요건이므로, (3)은

유물론이 거짓임을 증명한다.⁴⁾

위 논증은 논리적으로 봐서 타당하다. 문제는 각 전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2절에서는 좀비의 가능성에 오히려 인정하는 유물론자의 주장을 소개하겠다. 의식의 제거를 주장하는 제거주의적 유물론자들에게는 좀비의 가능성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가 된다. 3절과 4절은 전제 (2)에 대한 검토이다. 의식 이원론자들은 물=H₂O처럼 그 동일성이 이미 확립된 경우와 의식의 경우에 (2)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물과 통증의 경우에 동일성의 설명 방식이 정말로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두 경우에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어 상상가능성 논증이 그럴듯하지 않다고 주장하겠다.

좀비의 가능성

상상가능성 논증에 대한 비판은 주로 (1), (2)에서 (3)으로의 도출 과정에 집중된다. 좀비의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은 유물론자들은 좀비가 상상가능하더라도 실제로 가

4) Chalmers(1996: 123쪽)는 자신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우리의 세계에는 의식적 경험이 존재한다.
2. 우리의 세계와 물리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우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의식에 관한 궁정적 사실들이 성립하지 않는 세계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3. 따라서 의식에 관한 사실은 물리적 사실들 이상의 것으로서 우리 세계의 추가적 사실이다.
4. 따라서 유물론은 거짓이다.

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마치 H₂O가 아닌 물을 상상가능하지만 실제로 물이 H₂O가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는 전제 (1), 곧 좀비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삼아 보자. 유물론자 중에서도 주로 제거주의적 유물론자들은 좀비의 상상가능성 뿐만 아니라 실제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식 이원론자와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유물론의 근본 주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세계에서 의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식은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곧 좀비이다. 반면에 유물론자들 중에서도 유형 동일론자들은 좀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의식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식 이원론자와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그 의식은 뇌의 특정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뇌와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의식 이원론자와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⁵⁾

크릭과 코흐는 현재 뇌의 일부가 좀비처럼 행동함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Crick&Koch 2001)는 점에서 제거주의적 유물론자와 일치한다. 곧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지 말할 수 없으면서도 적절한 운동 출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의 시각 입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밀너와 굿데일의 연구 결과(Milner&Goodale 1995)를 인용하여 개구리에는 적어도 두 가지 독립적인 행동 시

5) 좀비와 의식에 대해 제거주의적 유물론자, 유형 동일론자, 의식 이원론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Stalnaker(2002)를 보라. 이들은 각각 Chalmers(1996: 165-168쪽)가 구분한 A-, B-, C-형에 해당한다.

스템이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것들은 무의식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는 작고 먹이 같은 대상을 붙잡는 데 쓰이고, 다른 하나는 커다랗고 솟구치는 원형물에서 뛰어오를 때 쓰인다고 한다. 크릭과 코흐는 우리 뇌도 그런 특별한 좀비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장류의 두뇌 속에는 의식의 부재 상태에서 기능하는 감각운동계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의식이라는 번거로움이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말한다(Koch&Crick 2001).

밀너와 굿데일은 영장류에서는 온라인 시스템(the on-line system)과 시각 시스템(the seeing system)이라는 두 시스템이 있다고 제안한다. 온라인 시스템은 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의식적이지 않고, 시각 시스템은 의식적이다. 많은 포유류의 두뇌 체계는 직접적인 의식적 입력이 없어도, 복잡하지만 반복적인 과정들을 수행한다. 밀너와 굿데일은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두뇌 부위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에 비유하여 온라인 시스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크릭과 코흐는 이 시스템을 ‘좀비 행위자’(zombie agents)라고 부른다(Koch&Crick 2001).

크릭과 코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가설을 제안한다.

뇌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 가장 빠른 적합한 길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 생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 아마도 거기에는 경쟁이 있을 것이고 가장 빠른 흐름이 이길 것이다. 온라인 시스템은 이런 가설적인 피질 흐름 중 가장 빠를 것이다. 이

것이 바로 당신의 좀비 부분이 될 것이다
(Crick and Koch 2001: 262쪽. 원문 강조).

온라인 시스템의 사례는 스포츠에서 볼 수 있다. 아주 빠른 서브를 받는 숙련된 테니스 선수는 공을 볼 시간이 없다고 한다. 보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수전 그린필드는 그런 사례를 소개한다. 일류 테니스 선수는 193킬로미터에 이르는 서브를 넣는다. 공이 라켓을 떠나면 상대 선수는 400밀리초 미만의 시간에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파악해야 한다. 어떻게 되받아칠지는 잠재의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선수가 공을 되받아치면서도 서브가 시작되었다는 것조차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그린필드, 2004: 300-1쪽). 마찬가지로 달리기 선수도 출발 신호를 의식적으로 듣기 전에 출발한다고 믿어진다.

생리학자 벤저민 리벳은 각성 상태에서 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핀에 손을 찔리는 것을 뇌가 인지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였다. 그가 핀으로 환자의 손을 찌르자 그 신호가 뇌에 도달하는 데는 20밀리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에 반해 환자가 뭔가를 느꼈다고 보고할 때까지는 거의 0.5초(500밀리 초)가 걸렸다. 따라서 뇌가 거의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500밀리 초가 걸리는 셈이다.

그린필드는 이런 사례를 우리의 자유의지가 환상일 수도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무의식적인 좀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린필드는 놀랄 만한 리벳의 실험 결과를 전해준다. 리벳은 피실험자의 두개골에 전극을 설치하여 운동

피질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였다. 운동 피질은 운동 생성에 관계하는 대뇌 피질의 일부이다. 피실험자는 아무 때나 버튼을 누르면서 정확히 언제 그걸 누르고 싶었는지를 보고하기만 하면 되었다. 리벳은 의식적 욕구가 발현되고 나서 운동 피질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상과 정확히 정반대가 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운동 피질이 활성화된 후 거의 1초가 지나서야 운동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우리의 뇌가 이미 잠재적으로 운동 결정을 내렸고, 일단 그 과정이 시작되고 난 후에야 그것을 깨닫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린필드는 “뇌의 견지에서 볼 때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신경생리학적인 사기인 것이다.”(304쪽)라고 말한다.

형이상학적 간극과 개념적 분석

이제는 좀비의 상상가능성에서 실제적인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상상가능성 논증은 멀리는 데카르트 논증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깝게는 크립키의 논증을 변형한 것이다. 데카르트가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마음과 몸은 구분된다고 주장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이후 데카르트의 비판자들은 상상가능한 구분에서 실제적인 구분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상가능성은 인식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이것은 형이상학에서는 훌륭한 길잡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승만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아닌 상황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이승만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데카르트의 논증은 간단하게 물리쳐진 것처럼 보인다.

크립키는 이것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Kripke, 1980). 그에게서 상상가능성에서 형이상학적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동일성 주장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방금 든 다음 예를 생각해 보자.

(4) 이승만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이 진술은 물론 참이다. 그러나 고정 지시어인 ‘이승만’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같은 대상을 지시하지만 특정 대상 기술구(definite description)인 ‘한국의 초대 대통령’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므로(곧 비교정적으로 지시하므로), (4)는 우연적으로 참인 동일성일 뿐이다. 우리는 이승만이 실제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아닌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둘 사이의 구분을 상상 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5) 물은 H_2O 이다.

와 같은 이론적 동일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과 H_2O 는 둘 다 고정 지시어이므로 모든 가능 세계에서 각각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데, 실제 세계에서 물은 H_2O 이므로 모든 세계에서 물은 H_2O 이다. 따라서, 크립키에 따르면, (5)는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 참인 진술들이다.

한편 크립키 이전까지는 필연적인 참과 선

험적인(*a priori*) 얇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여겨져 왔다. H₂O는 물의 본질적 성질이다. 그런데 그러한 물의 본질은 물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질 수 없고 경험적(*a posteriori*) 탐구에 의해 발견된다. 그러나 크립키는 설혹 우리가 진술(5)를 선형적으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5)는 필연적인 참이 된다고 말한다. (5)는 그 참이 경험적으로 알려진 것이지만, ‘물’과 ‘H₂O’가 모든 가능 세계에서 같은 물리적 성질을 고정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형이상적으로 필연적이다. ‘필연적 참’은 형이상학적 개념이고 ‘선형적 얇’은 인식론적 개념이므로 서로 분리될 수 있으며 또 분리되어야 하고, 그래서 필연적인 참도 경험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 크립키의 주장이다.

경험적으로 필연적인 참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가능한 구분에서 실제의 구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5)는 형이상 학적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고서도 상상가능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이 H₂O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물이 H₂O가 아닌 세계는 상상가능하다. 그러나 물이 H₂O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물이 H₂O가 아닌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물과 H₂O의 동일성은 성립한다. 만약 크립키의 주장과 달리 물이 H₂O가 아닌 상황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것은 그 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립기는 이 말이 심신 동일성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통증이 어떤 신경 상태, 곧 C-섬유의 자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자.⁶⁾ 그리고

6) 이 동일성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C-섬유는 말초 신경계에 속하고 통증 감각은 신피질(neocortex)에 (아마도 체지각 피질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6) 통증=C-섬유의 자극

이 과학의 확립된 동일성이 되고 토대적 법칙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의 C-섬유가 자극될 것이라는 증거에 의거해서 그 사람이 통증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 한 사람의 C-섬유가 자극되었다는 증거에 의거해서 그 사람이 왜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통증에 관해 훌륭한 환원적 설명인 것 같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의식 이원론자들은 통증과 C-섬유의 자극 사이의 설명적 간극이 여전히 열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상상가능성 논변에서는 C-섬유가 자극되었지만 거기에서 의식적 경험이 발생하는지 묻는 것이 이해가능하다. 의식 이원론자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와 물리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우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의식에 관한 긍정적 사실들이 성립하지 않는 세계가 논리적으로 가능함을 주장한다. 좀비와 같은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이다. 차머스는 좀비의 상상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좀비, 곧 나와 (또는 어떤 의식적인 존재 와도) 물리적으로는 똑같지만 의식적인 경험은 완전히 결여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의 논리적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추정된다. C-섬유는 통증을 수반하는 자극의 탐지기에 불과하다. 실제로 통증 탐지기는 C-섬유 만이 아니다. 빠른 A_δ 섬유도 통증 탐지에 참여 한다. 한편 Hardcastle(1997)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통증 상태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통증이 C-섬유의 자극이라고 하자.

총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좀비 세계, 곧 우리 세계와 물리적으로 똑같지만 의식 경험은 없는 세계의 논리적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좀비이다.

그럼 나의 좀비 쌍둥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피조물은 나와 분자 하나하나까지 똑같고 완전한 물리학이 가정하는 하위 차원의 속성 모두에서 똑같지만, 의식 경험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 바로 지금 내가 밖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멋있는 초록색 감각을 경험하고 있고 초콜릿을 와삭와삭 먹으면서 맛있는 맛을 경험하고 있고 내 오른쪽 어깨에 쑤시는 감각을 둔하게 느끼고 있으면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나의 좀비 쌍둥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는 나와 물리적으로 똑같으며, 우리는 그가 똑같은 환경에 있다고 가정해도 좋다. 그는 확실히 나와 기능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적절하게 바뀐 내부 구조를 처리하고 그 결과 행동은 우리와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는 기능적인 의미에서 밖에 있는 나무를 지각하고 심리적인 의미에서 초콜릿을 맛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심리적인 개념의 기능적 분석의 도움을 받아 그가 나와 물리적으로 똑같다는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 나온다. … 이런 기능 중 어떤 것에도 진짜 의식적 경험이 동반하지 않는다. 현상적 느낌은 없을 것이고, 좀비가 된다는 그 어떤 것은 없다. (Chalmers 1996: 94-5쪽, 원문 강조)

그렇기 때문에 (6)의 동일성은 (5)의 동일성

과 다른 성격이고, 물의 경우와 달리 통증의 경우에는 상상가능성에서 형이상학적 가능성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차머스의 설명에 따르자면, 신이 우리 세계를 창조할 때 물리적 속성들을 창조하는 것만으로 정신 속성이 덤으로 따라 나오지 않는다. 신은 두 번 일해야 한다 (Chalmers 1996: 41쪽). 즉, 일정한 물리적 속성들 또는 구조로부터 일정한 의식의 사실들이 따라 나오도록 특정한 형태의 물리-정신의 법칙을 부여하여야 한다. 반면에 신은 물을 창조하기 위해 H_2O 의 물질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며, 열을 창조하기 위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잭슨과 차머스가 의식이 없는 좀비를 생각하더라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식을 물리적 개념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식의 물리적인 개념적 분석이 없다는 사실이 의식은 물리적인 것과 결코 동일하지도 않고 거기에 수반하지도 않는다는 의식 이원론을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레빈(Levine, 1983; 1993)의 용어를 패러디하면 ‘형이상학적 간극’(metaphysical gap)이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들도 물론 “물은 H_2O 이다.”처럼 두 종류의 용어를 연결하는 전술이 필연적이고 경험적일 때가 많으며, 따라서 순전히 개념적 근거만 가지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물’과 ‘ H_2O ’가 표현하는 개념은 같은 것을 지시하긴 하지만 독립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경험적인 필연성일지라도 필연성 주장은 개념적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물’이나 ‘열’과 같은 경우에는 우연적인 경험적 미시물리적 주장과 결합했을 때 경험적인 필연성을 충분히 도출

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잭슨과 차머스는 물리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형이상학적 간극을 닫을 물리주의적 설명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용어에 의한 선형적인 개념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의식은 미시물리적 사실로부터 선형적으로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리주의는 거짓이라고, 그래서 형이상학적 간극은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비처럼 물리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지만 의식이 없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전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의식 개념은 물리적 용어로 분석적인 정의를 할 수 없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 액체이며 마시면 목을 축여주며 호수와 강을 채우고 있다는 등의 물과 관련된 거시적 성질들을 편의상 블록과 스톤내이커를 따라 ‘물 같은 물질’(the waterish stuff)이라고 부르자(Block & Stalnaker 1999). 그러면 다음 두 진술이 있다고 하자.

(8) 지구는 60%가 H_2O 이다.

(9) H_2O =물 같은 물질

(8)은 경험적인 미시물리적 참이고 (9)도 역시 경험적인 참이다. 한편 잭슨과 차머스에 따르면

(10) 물=물 같은 물질

은 선형적인 참이다. (9)와 (10)으로부터

(11) H_2O =물

이 논리적으로 따라 나온다. 따라서 (11)의 도움을 받아 (8)로부터 경험적인 결론,

(12) 지구는 60%가 물이다.

가 선형적으로 도출된다.

여기서 관건은 (10)이 선형적인 참이기 때문에 물과 H_2O 를 연결하는 개념 분석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물은 H_2O 이다.”가 형이상적으로 필연적이므로 (8)에서 (12)가 바로 도출되기는 하지만 선형적으로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크립키의 경험적 필연성을 생각한다면 (8)에서 (12)는 선형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 도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구의 60%가 H_2O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경험적 조건과, 우리 세계에서 참인 그 사실이 우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모든 세계에서도 참이라는 통세계적 고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진술 사이의 합축은 언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곧 모든 가능 세계를 통해 전체가 참이고 결론이 참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 분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제에서 결론으로의 추론이 언어적이고 선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연 H_2O 에서부터 물로의 추론이 개념에 의한 선형적인 것인가?

잭슨은 ‘물’이라는 낱말이 단순히 ‘물 같은 물질’을 뜻하지 않고 ‘실제 물 같은 물질’을 뜻한다고 본다(Braddon-Mitchell&Jackson: 70-4쪽, 133쪽, 141-2쪽). ‘실제’(actually)라는 낱말이 하는 역할은 실제 세계에서 관련된 기술을 만족하는 것에 지시체를 고정하는 것이다. ‘물 같은 물질’은 모든 가능 세계 w 에서 물 같은 물

질인 것을 지시하겠지만, ‘실제 물 같은 물질’은 모든 가능 세계 w에서 실제 세계에서 물 같은 물질인 것을 지시한다. 잭슨은 ‘실제’라는 낱말을 집어넣음으로써 특정 대상 기술구를 고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특정 대상 기술구가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⁷⁾ 이제 (10)의 ‘물’ 대신에 ‘실제 물 같은 물질’을 대치하면 “실제 물 같은 물질=물 같은 물질”의 꼴이 되는데, 한쪽에 나오는 특정 대상 기술구를 가지고 다른 쪽의 고정 지시어가 만들어지므로 (10)은 선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잭슨의 전략은 경험적으로 필연적인 진술인 (11)을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하나는 미시물리학에서 도출되는 H₂O에 관한 경험적 진술 (9)이고, 또 하나는 개념적 분석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그가 주장하는 선형적 진술 (10)이다.

그러나 나는 “물=물 같은 물질”이 사실은 선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시체를 고정하는 관행을 생각해 보자. 기술, 곧 거시적 성질이 이름의 지시체를 고정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기술이 이름의 의미의 일부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크립키의 논의를 통해 잘 알고 있다.⁸⁾

실제로 블록과 스톤내이커는 형이상학적 간극을 닫기 위해 선형적인 개념적 분석이 필요

하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하며, “물=H₂O”와 같은 경험적 동일성이 설명적 간극을 메우기에 여전히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설명될 현상에 대한 일상적 기술을 과학 언어의 기술과 연결시키는 다리 원리들에게 순수하게 개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설명적 간극을 메우는 것이 현상에 대한 통속 기술을 선형적으로 연역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의식에 대한 개념적 분석이 없다고 하여 의식과 물리적인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에 장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Block & Stalnaker 1999: 8-9쪽)

물의 경우처럼 우리가 의식의 경우에도 그 동일성을 개념적 분석으로서가 아니라 크립키적인 동일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신경과학으로 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식에 대한 동일성 주장은 “물=H₂O”的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동일한 종류의 고려를 사용함으로써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왜 열=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가정하는가? 물을 가열하는 것이 왜 물을 끓게 하는가에 대한 위의 설명을 보라. 열=분자 운동 에너지, 압력=분자 운동량 이전, 비등=일종의 분자 운동이라고 하자. (여기서 동일성은 경험적 동일성 주장이며, 앞에서 고찰한 선형적 행동 분석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열이 비등을 산출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주어진다. 동일성 대신에 단순

7) 특정 대상 기술구와 고정 지시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훈(1999a)를 참조하라.

8) 가령 호랑이의 모든 외적 특성들이 있어도 호랑이가 아닐 수 있고, 반면에 실제로 이런 특성들이 하나도 없어도 호랑이일 수 있다(Kripke 1980: 119-121쪽). 이 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훈(1999a)과 김영정, 최훈(2002)를 참조하라.

한 상관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열과 연관된 어떤 것이 비등과 관련된 어떤 것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가질 뿐이다. … 동일성은 단순한 상관 관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설명적, 인과적 힘을 이전 시킨다. 열=분자 운동 에너지, 압력=분자 운동량 이전 등을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동일성이 참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Block & Stalnaker 1999: 23-4쪽)

열이 분자 운동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을 뿐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왜 그 연관성이 존재하며 그 연관성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 곧 차머스가 ‘어려운 문제’라고 부른 문제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블록과 스톤네이커의 말처럼, “열이 분자 운동 에너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러한 질문은 잘못된 것임이 보여진다”(Block&Stalnaker 1999: 24쪽, 원문 강조). 같다고 밝혀진 것을 보고 왜 같으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동일성은 형이상학적 간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의식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론적인 고려가 적용된다.

개념적 분석의 도움 없이 어떻게 그런 동일성 주장이 정당화되는가? 위에서의 단순성에 대한 고찰에서 묘사된 방법론적인 고려, 곧 물=H₂O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동일한 종류의 고려를 사용함으로써 정당화된다. (Block&Stalnaker 1999: 29쪽)

실제로 잭슨과 차머스는 통증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물과 같은 자연종의 개념은 현실세계에서 글라낸 미시물리적 성질(곧 H₂O)을 모든 가능세계에서 지시하지만, 통증과 같은 의식의 개념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거시적 성질(곧 의식 그 자체)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증의 경우는 동반하는 미시적 성질이 어떠한 것이든, 거시적 성질로서의 일정한 현상(감각질)이 나타나면 통증인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통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런 감각질이 없는 가능세계는 통증이 없는 세계이고 통증과 C-섬유의 자극의 동일성에 대한 반례가 되는 세계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물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H₂O인지 아닌지에 의해 결정되지만, 어떤 것이 통증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C-섬유의 자극인지 아닌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않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의 본질은 H₂O이지만 통증의 본질은 C-섬유의 자극이 아니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통증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은 증명되어야 할 것이지 전제되어 할 것은 아니다. 나는 그들이 여기서 심각하게 질문을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식 이원론자들이 왜 질문을 구걸함을 무릅쓰고 물과 통증의 경우를 서로 다르게 다룰까?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

가능성의 착각

2절에서 말한 좀비의 가능성은 우리 뇌의 일부가 좀비처럼 행동한다는 가능성이지 차머

스나 잭슨이 말한 것처럼 언제나 의식이 없는 좀비의 가능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의식이 전혀 없는 좀비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좀비처럼 행동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대표적인 제거주의적 유물론자인 처칠랜드는 좀비의 가능성을 응호하기보다는, 좀비의 가능성을 말하는 논리적 가능성이 너무 강한 요구이기 때문에 과학적 환원의 역사적 사례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좋은 설명은 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경험적 가능성을 배제하면 충분하다고 말한다(Churchland 2002: 177쪽). 그는 좀비의 상상가능성 논증과 비슷한 다음과 같은 테드비(Deadbies) 상상가능성 논증을 만들어 보인다.

우리는 테드비가 세포막이 있는 세포, DNA가 있는 핵, 보통의 세포 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을 상상할 수 있다. 테드비는 지구에 있는 유기체나 똑같이 번식, 소화, 호흡, 대사, 단백질 생성, 성장 등을 한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실제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논리적 가능성이이다. 따라서 생명은 생물학과 설명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Churchland 2002: 178쪽. 원문 강조)

우리는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기체의 분자의 빠르기는 증가하는데 온도는 증가하지 않는 행성을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온도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와 설명적으로 독립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결론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좀비의 상상가능성에 의해 의식이 신경과학과 설명적

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결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처칠랜드의 논증은 과학에서 이미 확립된 이론적 동일성의 경우와 의식의 경우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의식이 신경과학적인 토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생명, 물, 온도의 환원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처칠랜드는 이런 간접적인 논증이 “분명히 심리적 현상에서 물리적 현상으로의 환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Churchland 1997: 131쪽). 그러나 신경과학에서 의식에 대한 설명은 꾸준히 그리고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상상가능성 논증은 거기에 대해 그 설명이 의식과 신경과학적인 토대 사이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상상가능성 이 논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논증만으로도 유물론자들은 자신의 진영을 지킬 수 있다. 물론 복수 실현 가능성 같은 또 다른 반유물론 논증을 물리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왜 의식 이원론자들은 H_2O 가 아닌 물 또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아닌 온도의 상상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식이 없는 좀비의 가능성은 인정하는 걸까? 나는 의식 이원론자들이 H_2O 가 아닌 물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를 검토해 봄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과 의식의 경우에 상상가능성이 그렇게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다.

물과 H_2O 의 동일성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을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은 생각건대 물과 H_2O 는 다르다고, 곧 H_2O 가 물이 아니라고 상상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크립키에 따

르면 이것은 가능성의 착각이다.⁹⁾ 물과 H₂O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동일하지 않다고 상상할 수 없다. 왜 그려면 우리는 그것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크립키의 표현에 따르면, 착각하는 것일까? 왜 H₂O가 아닌 물을 상상하는 것은 착각이고 의식이 없는 뇌를 상상하는 것은 착각이 아닐까?

그 대답은 현상과 실제 사이의 구분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물의 현상을 가지고 물을 생각한다. 우리는 액체이며 마시면 목을 축여주며 호수와 강을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블록과 스톤레이커가 ‘물 같은 물질’이라고 부른 이런 현상들을 크립키는 ‘우연적인 지시체 고정자’(contingent reference fixer)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물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현상을 때문에 틀리지 않고 물을 골라낼 수 있다. 우리 세계에서 대부분의 물의 샘플이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이런 성질들을 보이는 다른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연적인 현상들은 고정 지시어와 달리 가능 세계들에서 같은 대상을 지시하지는 않지만, 고정 지시어가 대상을 지시할 때 우리 세계에서 지시되는 현상들에 직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적인 현상을 통해 물을 상상하기 때문에 물과 H₂O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속아서 상상할 수 있다. 물 같은 물질 현상은 물 이외의 것들(가령 XYZ)에 의해서도

9) Kripke에 따르면 가능성의 착각뿐만 아니라 필연성의 착각도 있다. 곧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것이 가능한데 필연적으로 보이는 경우이다. 두 착각에 대한 Kripke의 설명 방식이 같으므로 여기서는 가능성의 착각만 다루도록 하겠다.

나타내고, 거꾸로 H₂O는 물 같은 현상이 아닌 다른 현상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과 H₂O를 구분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실제로는 물 같은 현상과 H₂O를 구분해서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크립키에 따르면 (5)는 경험적이며 필연적인 동일성 명제이다. ‘물’과 ‘H₂O’ 모두 고정 지시어이므로 필연적인 명제이며 경험에 의해 그 참이 알려지므로 경험적인 명제이다. 그런데 이 명제가 우연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명제를 접하는 것이 고정 지시어 ‘물’ 또는 ‘H₂O’를 통해서가 아니라 ‘액체이며 마시면 목을 축여주며 호수와 강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는 우연적인 지시체 고정자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 우연적인 지시체 고정자가 H₂O가 아닌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세계 또는 물이 그런 우연적인 지시체 고정자를 안 갖는 세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시체를 우연적인 지시체 고정자와 혼동하게 될 때 착각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6)이 우연적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통증이 C-섬유의 자극이 아닌 것이 상상가능한 것도 착각일까? 만약 착각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곧 C-섬유의 자극이 통증 없이 존재할 수 있거나 통증이 C-섬유의 자극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C-섬유의 자극이 ‘통증’의 지시체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크립키에 따르면 우연성의 현상을 통해 착각을 설명하는 것이 통증의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다.

열과 분자 운동의 동일성의 경우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열’이 고정 지시어이긴 하

지만 그 지시어의 지시체는 지시체의 우연적 속성, 곧 우리에게 감각 S를 만들어 내는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열의 현상이, 그 현상이 열이 아니고 그 래서 문자 운동이 아니고서 그 지시체가 감각 S에 의해 골라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적으로 지시되는 것이 가능하다. (Kripke 1980, 152쪽)

문자 운동 에너지와 열의 경우에는 외부 현상과 관찰자 사이에 어떤 것, 곧 열의 감각이라는 매개체가 있다. 정신-물질의 경우에는 그런 매개체가 가능하지 않다. (Kripke 1980, 152쪽)

반면에 통증은 우연적 속성에 의해 골라내지지 않는다. 통증 그 자체의 속성에 의해, 즉각적인 현상적 성질에 의해 선택된다. 따라서 통증은 열과 달리 ‘통증’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시될 뿐만 아니라 그 지시어의 지시체는 지시체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통증은 어떤 물리적 상태와 필연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물리적 상태와 연결되지 않으면서 통증을 골라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현상이 골라내질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어떤 현상이 우리가 통증을 골라내는 방식과 똑같이 골라내어진다면 그 현상은 바로 통증이다. (Kripke 1980, 152-153쪽)

과학에서 밝혀진 이론적 동일성의 경우, 그 필연성이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해명할 수 있었지만 통증의 경우에는 그 해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증이 C-섬유의

자극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은 진짜 가능성이이다. (6)은 경험적일 뿐만 아니라 우연적 이기까지 하다는 것이 크립키의 주장이다.

크립키의 주장처럼 우리는 C-섬유의 자극과 통증이 구분되는 것처럼 쉽사리 상상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C-섬유의 자극 없이 통증을 상상할 수 있고 통증 없이 C-섬유의 자극을 상상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크립키 설명 방식에 따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 우리가 C-섬유의 자극 없이 통증을 상상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실제로는 통증의 피상적인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곧 통증처럼 보이지만 다른 종류의 물리적 상태로 되어 있는 경험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통증 없이 C-섬유의 자극을 상상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보통 통증을 골라낼 때 쓰이는 것(곧 감각질)과 다른 피상적인 속성들을 C-섬유의 자극이 만들어내는(또는 그런 피상적인 속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증과 C-섬유의 자극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실제로는 통증 같은 현상과 C-섬유의 자극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크립키의 설명에 따르면 통증에는 우연적인 지시체 고정자가 없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통증의 현상(감각질)이 곧 실재이기 때문이다. 통증 같은 현상이 곧 통증이다. 따라서 우리가 물과 H₂O를 구분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물 같은 현상과 H₂O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통증이 C-섬유의 자극과 구분되는 세계를 상상할 때는 실제로 통증 그 자체와 C-섬유의 자극이 구분되는 세계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통증이 C-섬유의 자극

과 구분된다는 칙관이 잘못이라는 것을 해명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둘이 구분될 수 있다 고 결론 내려야 한다. 그러면 통증과 C-섬유의 자극의 동일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의 경우에는 현상과 실재가 구분되지만 통증의 경우에는 그 둘이 일치한다는 생각은 흔하다. 힐과 맥로플린은 우리가 물리적 개념에 대한 진술은 간접적으로, 감각적 개념에 관한 진술은 내성적(간접적)으로 상상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두 개념의 사용을 지배하는 “인식적 제약”이 전혀 다른데, “우리의 현재 경험을 분류하기 위해서 감각적 개념을 사용할 때, 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안내하고 정당화하는 경험은 그 개념이 적용되는 개념과 언제나 똑같다.” 그러나 물리적 개념의 경우에는 “지각된 현상과 동일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촉발된 지각된 현상의 경험을 통해” 야 한다(Hill&McLaughlin 1999: 448쪽). 사실 그들의 이런 구분은 네이글의 ‘지각적 상상’과 ‘공감적 상상’에서 빌려온 것이다(Nagel 1974: 주11). 또 로어는 물리적 대상들에 대한 개념은 우연적인 표상 방식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반해 현상적 개념은 그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Loar 1999). 의식과 의식 이외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물론자가 됐든 이원론가 됐든 많은 이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그 구분으로부터 이원론자는 그러기에 의식이 물리적 속성과 필연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유물론자는 서로 다른 인식적 제약의 지배를 받는 개념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상적 표상은 부정확하다거나(힐과 맥로플린), 두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속성들을 지시

한다는 것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로어). 그러나 의식과 의식 이외의 인식이 꼭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통증의 경우에는 물과 달리 현상과 실재가 꼭 일치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증도 물처럼 현상과 실재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통증을 비롯한 의식적 정신 상태가 우연적인 지시체 고정자를 사용하여 표상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다시 말해서 통증과 통증의 표상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물에 대한 (5)와 통증에 대한 (6)의 동일성 주장이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일반적으로는 현상적 상태와 그것을 표상하는 데 쓰이는 상태는 구분된다. 통증과 같은 현상적 상태는 말초 속성을 지시하고, 그 상태를 지시하는 상위 차원의 상태는 무의식적인 사고나 의식적인 언어 이미지의 형태로 올 수 있다. 나는 내가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속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재의 통증을 표상할 수 있다. 내가 통증에 대해 생각할 때 나 내가 통증을 개념화할 때, 나는 분명히 상위 차원의 상태를 사용한다. 통증에 대한 내 생각의 전달 수단은 그런 상위 차원의 상태이지, 경험 그 자체는 아니다.

프린츠는 경험과 그 경험의 표상 사이의 관계가 우연적이라는 것을 빨간색의 경험을 예로 들어 입증한다(Prinz 2002). 우선은 사람들 은 확실히 빨간색의 경험에 대한 상위 차원의 표상이 없이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동조정장치를 작동시키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그 실례인데, 교통 신호, 거리 표지, 브레이크 불빛은 운전기사가 빨강을 경험함을 표상하지 않고서도 빨강을 경험하게

한다. 프린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빨간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빨간 경험의 상위 차원의 표상을 가질 수 있음을 임상 증거를 통해 보여준다.

인지 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우리가 현상적 상태에 있을 때만 현상적 상태에 대한 상위 차원의 표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지 체계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안톤 증후군 환자는 맹인이지만 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경험 없이 경험의 표상을 가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설명이다. 일상적으로 시각 상실은 현상적 상태와 그 상태의 표상 모두를 손상시키지만, 이 증후군에서는 현상적 상태만 손상된다. 환자는 시각적 현상이 없을 때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Prinz 2002: 289쪽)

이런 상황이라면 빨강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위 주장이 옳다면 물이나 열의 경우처럼 통증의 경우에도 ‘외부 현상과 관찰자 사이에 어떤 것’이 있게 된다. 상위 차원의 표상이 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적인 지시체 고정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크립키가 다른 이론적 동일성을 설명하는 방식과 정확히 똑같이 통증의 동일성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통증을 그것과 관련된 뇌 상태와 구분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통증 없이 통증의 상위 차원의 표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통증 없이 C-섬유의 자극을 상상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C-섬유의 자극이 일어나고

그리서 통증이 일어나지만 그 경험의 상위 차원의 표상은 형성되지 않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좀비의 가능성도 물이 아닌 H₂O의 가능성처럼 착각이다. 그러면 좀비는 가능하지 않다.

맺는말

의식 이원론자들이 의식과 물리적 상태 사이에 형이상학적 간극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의식에 다른 물리적 현상과 다른 독특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독특한 성격은 통증의 동일성 주장이 다른 이론적인 동일성 주장과 다르다는 결론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들을 비대칭적으로 다를 이유가 없다. 물은 H₂O와 개념적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 그 형이상학적 간극이 메워진다. 마찬가지로 신경과학의 발달은 통증을 비롯한 의식의 형이상학적 간극을 메우고 있다.

H₂O가 아닌 물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착각인 것은 H₂O와 물의 현상적 속성을 구분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통증의 현상적 속성과 C-섬유의 자극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C-섬유의 자극이 아닌 통증을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H₂O가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는 물의 현상적 속성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었다. 그것이 곧 물 자체였을 것이다. 통증의 물리적 속성이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지지 않은 현재에는 통증의 현상적 속성이 곧 통증 그 자체이다. 그러나 신경과학의 발달은 통증과 C-섬유의 자극 사이에 통증의

현상적 속성이 별개로 매개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다.

참고문헌

- 그린필드, 수전 (2004), 브레인 스토리, 정병선
옮김, 지호.
- 김기현 (2001), “의식의 인과적 기능”, 철학적
분석 5: 35-62쪽.
- 김영정 (1996), “기능주의의 여러 유형과 감각
질 문제”,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서울: 철
학과 현실사: 161-186쪽.
- 김영정, 최훈 (2002), “사실-가치 구분과 그 심
리철학적 함축”, 철학사상 14: 81-107쪽.
- 최훈 (1994), “의식 연구의 새로운 방식”, 과학
사상 9권 1호: 228-234쪽.
- 최훈 (1997), “지향적 상태와 컴퓨터 유비”, 과
학과 철학 8: 192-241쪽.
- 최훈 (1999a),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러나 상
당히 인과적인 지시 이론”, 철학 제60집:
301-321쪽.
- 최훈 (1999b), “전자와 플로지스톤의 차이”, 과
학철학 제2권(1999): 65-94쪽.
- 최훈 (2004), “복수 실현의 딜레마들”, 철학연
구 67: 139-163쪽.
- 크릭, 프란시스 (1996), 놀라운 가설, 과학세대
옮김, 한뜻.
- Block, Ned (1980), “Introduction: What is
Functionalism?”, in Ned Block (ed.),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71-184.
- Block, Ned and R. Stalnaker, (1999), “Conceptual
Analysis, Dualism and the Explanatory Gap,”
Philosophical Review 108: 1-46쪽.
- Braddon-Mitchell, David and Frank Jackson
(1996), *Philosophy of Mind and Cognition*,
Blackwell.
- Chalmers, David (1996), *The Conscious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urchland, P. S. (1997), “Can Neurobiology
Teach Us Anything about Consciousness?”, in
N. J. Block et. al. (eds.) *The Nature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Debates*, Cambridge:
The MIT Press: 127-140.
- Churchland, P. S. (2002), *Brain-Wise: Studies in
Neurophilosophy*, Cambridge: MIT Press.
- Churchland, Patricia and Sejnowski, Terence (1992),
The Computational Brain. Cambridge, MA:
MIT Press.
- Crick, Francis and Christof Koch (1992),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Scientific American*,
September, 1992.
- Crick, Francis and Christof Koch (2001),
“Consciousness and Neuroscience”, in W.
Bechtel, Pete Mandik, Jennifer Mundale, and
Robert S. Stufflebeam (eds.), *Philosophy and the
Neurosciences: A Reader*, Oxford: Blackwell:
254-277.
- Gareth Evans (1992), *The Varieties of Refer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dor, Jerry (1981), “Special Sciences,” in
*Representations: Philosophical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IT Press: 127-145.
- Hardcastle, Valerie Gray (1997), “When a Pain Is
Not”, *Journal of Philosophy*. 94: 381-409.
- Hill, Christopher S. and McLaughlin, Brian P.

- (1999), "There Are Fewer Things in Reality Than Are Dreamt of in Chalmers's Philosoph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9: 291-295.
- Jackson, Frank (1986), "What Mary Didn't Know," *Journal of Philosophy* 83: 291-295.
- Jackson, Frank (1993), "Armchair Metaphysics," in O'Leary Hawthorne and Michaels (eds.), *Philosophy of Mind*, Dordrecht: Kluwer Press.
- Jackson, Frank (1997), "Finding the Mind in the Natural World", in N. J. Block et. al. (eds.) *The Nature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Debates*, Cambridge: The MIT Press: 483-491.
- Kim, Jaegwon (1996), *Philosophy of Mind*, Westview Press.
- Koch, Christof and Francis Crick (2001), "The Zombie Within", *Nature* 411: 89.
- Kripke, S. (1980), *Naming and Necess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vine, Joseph (1983), "Materialism and Qualia: the Explanatory Gap,"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354-61.
- Levine, Joseph (1993), "On Leaving Out What It Is Like," in M. Davies and L. Humphreys eds., *Consciousness: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Essays*, Oxford: Blackwell.
- Loar, B. (1990), "Phenomenal States", in J. Tomberlin (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Vol. 4: *Action Theory and Philosophy of Mind*, Atascadero: Ridgeview: 81-108.
- Milner, A. D. and M. Goodale (1995), *The Visual Brain in A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ner, A. D., D. I. Perrett, R. S. Johnston, P. J. Benson, T. R. Jordan, D. W. Heeley et. al. (1991), "Perception and action in 'visual form agnosia'", *Brain* 114: 405-28.
- Nagel, Thomas (1974), "What Is It Like to Be A Bat?" *Philosophical Review*. 83, 435-450.
- Rp. in N. Block (ed.) (1980), *Readings in Philosophy of Mind*.
- Prinz, Jesse (2002), "Functionalism, Dualism, and the Neurocorrelates of Consciousness", W. Bechtel, Pete Mandik, Jennifer Mundale, and Robert S. Stufflebeam (eds.), *Philosophy and the Neurosciences: A Reader*, Oxford: Blackwell: 278-294.
- Putnam, Hilary (1967), "Psychological Predicates", In Capitan and Merrill (eds.), *Art, Mind, and Relig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Stalnaker (2002), "What is Like to be a Zombie?", in Tamar Szabo Gendler and John Hawthorne (eds.), *Conceivability and Possibi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85-400.

1 차원고접수: 2005. 09. 23

2 차원고접수: 2005. 12. 5

최종게재승인: 2005. 12. 12